

제 66 호

사순절 제 1 주일

1974. 3. 3

# 숲 정 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합 승 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강 련】

## 사순절의 정신

(루가4:1~13)

김 영 일신부



“너는 먼지이니 다시 먼지로 돌아가거라” (창세기 3장 9절)

1. 전세계 가톨릭신자에게 일년에 한번씩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 머리에 재를 뿌리며 경고해주는 교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오래된 옛날 천주께서 아담과 에와에게 내리신 경고이면서 동시에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받아야 할 판결이었읍니다.

이 언도를 받은 아담은 900년간 자기 죄에 대한 통회와 보속으로 일생을 지내었고, 이 참회와 보속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여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당대에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까지 굳이 약속하시게 되었습니다.

2. 교회는 2000년간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꾸준히 알려주면서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현세대에도 교회자체의 반성을 위한 공의회가 열리고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 “화해의 성년”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화해의 성년”도 역시 교회가 말하는 “통회의 보속”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성년에 맞이하는 사순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회와 보속으로써 천주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 끼리는 어떻게 화해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사람들끼리 화해가 되어야만 천주님과 화해가 된다는 말도 됩니다. 이 화해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3. 화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①. 성실하게 자기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사막에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에서 가나안 북지를 가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사막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부활이라는 약속된 땅으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의무에 충실치 아니하면 인생의 사막속에서 질식하고 말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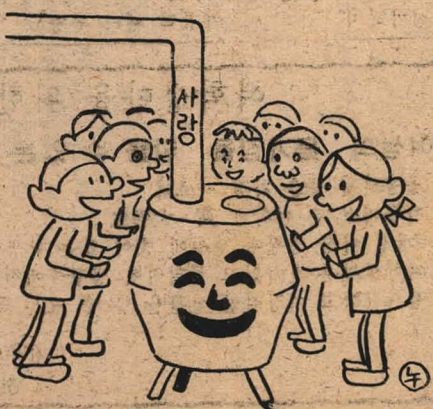
②. 거룩하게 살기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때보다는 더 기도의 생활이 요청되며 무엇인가 마음의 안정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많은 유혹자들이 생기면서 자칫하면 유혹에 말려들기가 일수니까 예수님이 사막에서 기도하신것처럼 열심히 힘을 내어 하느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많은 재를 지고, 고행을 하는 것만이 사순절을 잘 지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토대로 화해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서한동천주교회 주임신부)

## \*이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내게 부르짖을 때, 내 그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를 구하여 영화롭게 하리라. 오랜 세월로 그를 가득 채우리라.
- (2) 말씀의 전례  
 □제 1독서 (신명 26:4-10, 경향잡지 3월호)  
 선민의 신앙 고백.  
 □찬가송 ◎야훼님, 환난 중에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불행이 너에게는 오지 못하고 재앙도 내 막사에 열철하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시어 너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도다. ◎  
 □제 2독서 (로마 10:8-13, 성서 P. 357)  
 그리스도 신자의 신앙 고백  
 □복음전 노래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도다.  
 □복음 (루가 4:1-13, 성서 P. 131)  
 예수 성신의 인도로 광야로 가시다.  
 □신자들의 기도
- (3) 말씀의 전례  
 1. 주여, 비오니,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시오” 하는 이때에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인도하소서. ◎주여, ...  
 2.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않고 기도하신 주여, 우리가 지내는 사순절의 참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소서. ◎  
 3. 주여, 우리는 조그마한 고통에도 너무나 쉽게 실망합니다.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용기를 주시어 당신의 뜻을 바로 알아들어 용감히 살게 하소서. ◎  
 주 주여 비오니, 우리의 생활속에 사순절의 참뜻을 심어주소서. 우리 주...◎ 아멘
-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입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도다.
- (4) 폐회식

## \* 숲 정 이 산책 \*



남들과 같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 고백성사의 유효기간?



박진량 신부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미사참례를 하다가 영성체 시간이 되었을 때 문득 의심이 하나 생긴 것이다. 판공성사를 본지가 벌써 10여일이 지났는데 영성체를 해도 괜찮은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리저리 맘속으로 망설이다가 별로 생각나는 죄도 없고 해서 분연히 일어 서서 행렬 끝에 따라나가 영성체를 해버렸다.

그래도 의심쩍어서 미사가 끝난 다음에는 열심히 고민 움직스런 어른 신자에게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정확한 유효기간은 없으나 대개 고백성사를 받은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다시 고백성사를 받아야만 영성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나는 그 가르침을 비교적 확실히 지켜 왔었다.

오늘 날도 우리 신자들 중에 너무나 열심히 나머지 고백성사의 일주일(?) 유효기간을 영성체와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을까? 적어도 시골 본당이나 공소에서는 아직도 그런 불문률(不文律)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듯하다.

고백성사에 유효기간이 있을 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토 전서 11장 27-28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하신 성경 말씀과 「사람은 하루에도 일곱번씩 죄를 진다.」는 말씀을 생각하여 위와 같은 불문률이 생긴 것 같다.

그러나 위의 성경 말씀은 그 다음 귀절 (29절)에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은채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실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신 점으로 보아 성체교리에 대한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 보고 영성체하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영성체할 때 고백성사를 언제 받았는지를 연결시켜 기계적으로 행동할 것이 결코 아니다. 제사에 참여한 사람은 제찬을 나누어 먹음(음복)으로써 제사에 완전히 참여하듯이 미사 성체에 참여할 때도 합당한 마음 준비를 해서 미사때 마다 영성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하신 주님의 간절한 명령을 상기하자. <가톨릭 제2판 관장>

### 노송 성당 신축은

### 우리의 성당!



김정생 (베드로)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왕국입니다. 한몸의 모든 지체가 움직이고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함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몸의 구실을 하는 마와 같이 여러 교우들은 하느님 백성의 왕국을 확장 발전 시켜 완성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각자의 직위와 신분과 환경에 따라 노송성당 신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외면적으로도 그것을 표시하여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것 즉, 재산과 노력을 몸 전체의 교회 발전을 위하여 바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월19일 노송성당 신축기공식을 염려한 나머지 교우님께서 소속 본당도 밝히지 않으신채 머릿돌값 일금 3만원 을 보내오셨습니다. 또 어느 할머니께서 일금 3천원을 가져 오셨습니다. 또 교우 고광하님께서 전주를 떠나시면서 신축에 써달라고 일금 1만원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밝히 알으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 교우님께서도 또한번 우리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기공식을 기다리고 계시겠지요.

「내 재산과 솟곡식을 가지고 주 하느님을 공경할지니 이에 내 창고가 충만할 것이요, 네 포도원에 포도주가 풍성히 흐르리로다」 <잠언 3:9-10>

「너희는 보화를 땅에 쌓지 말라. 거기는 동록과 썩이 손상할 것이요, 또 도적이 뚫고 들어와 훔쳐갑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시오. 거기서는 썩 먹거나 녹슬거나 해서 못쓰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 합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스의 뜻대로 하느님의 공전을 신축하는데 다 함께 정성껏 힘씁시다.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풍성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송동 성당 신축위원장)

### 여학생만을 위한 기숙사

#### 여성의 몸가짐을 닦을 수 있는 시설

공동생활 뜻을 가진 자로써 지방에서 온 여학생 高·大學生 6개월 이상 생활관 생활에 뜻이 있는 학생을 받습니다. 여학생관은 질서있고 규칙적인 생활속에서 정서적이고 가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 ····· 보조시설

- ※ 아늑한 도서실
- ※ 안락한 휴게실
- ※ 탁구대와 오르간
- ※ 스티מצ치와 칠대

전주역전 가톨릭 여학생관  
전주시 서송동 601 전화 2955

양 지 쪽



고스톱의 매력

김길수

한 때 고스톱의 인구가 과잉되었을 때가 있었다. 48장의 화투 한장 한장이 모두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 놀이는 운영상의 기술이 다양하기 때문에 매력을 느낀다. 「고(GO)」할 때의 스티븐은 분위기를 긴장케한다. 가능한 한 스톱의 위험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스톱이 선포될 때 다른 멤버들은 가벼운 허탈감마저 갖는다. 이 게임이 갖는 최고의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고」를 친입하고 스톱의 고지를 향해 달리는 눈치작전을 펼 때 느끼는 팽팽한 긴장 분위기일 것이다. 바닥의 판돈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긴장 분위기는 정비례 상승한다. 이러한 경우엔 으레히 「먹느냐, 먹히느냐」식의 복수전이 승자의 욕심과 패자의 허욕속에서 전개된다. 오락으로서의 고스톱의 의미는 도박꾼과 놀음쟁이의 칭호를 불허한 「간다」라고 표현된 영어 동사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 인간의 정신력을 표현한 발진의 움직임이다. 과거는 현재를 향해, 현재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어떤 가치있는 목표와 완성을 위해 우리는 모두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인격의 성숙과 행복을 위한 성공, 믿음의 기쁨을 향해 우리는 살아 간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는 피와 땀의 노력으로 응결된 행진이 필요하다. 한그루의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 그 순(筭)은 하늘 높이, 그 뿌리는 땅속깊이 커 나가듯 신앙인은 깊은 믿음(信)과 험수없는 그리움(望), 그리고 뜨거운 사랑(愛)을 마음의 밭(心田)에 가꾸어 심어간다. 골고타의 행렬속에 떠밀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처절한 아픔을 같이 할 땀의 노력과 용기를 길러야 한다. 이것은 수고하고 짐진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깨어 일어나 기구하는」 신앙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발전과 성숙을 방해하는 스톱의 요소들이다. 인간적인 모든 나약이 바로 그것이다. 게으름, 육체적 쾌락, 교만심, 분노, 질투, 인색, 거짓 등이다. 스톱과 고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의 기도」에서 절대적인 대조를 이룬다. 믿음에 사랑을, 불화에 화목을, 의혹에 믿음을, 어둠에 광명을, 모욕에 인내를, 오류에 진리를, 절망에 희망을, 슬픔에 기쁨을 심는 그리스도식 사랑이야말로 받기 보다는 주어야 하는 고스톱의 또다른 의미가 아닐까? (가톨릭 시보 기자)

요심이 (33) 김병오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화 33498)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이삭회
- 매주 월요일 7시 반...메아리합창단
- // 월, 화, 목 금요일 7시 반...일본어 교실 (강사: 김용환 선생)
- ※ 회원들의 절대적인 요청에 의하여 금요일 하루 더 공부합니다.
- // 목요일 8시..... "목요일 밤에"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
-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 외국 문화 교실 English Conversation.....월~금요일 7시

현대인의 필수 조건은  
양서를 골라서  
읽는 것이다. (T.2~7398)  
\*성 바오로 서원

\* 이 주간의 성경 \*

- 4(월) 성 가시미로  
독서(레 위 19: 1-2, 11-18)  
복음(마 태 오 25: 31-46, 성서 P. 62)
- 5(화) 독서(이 사 55: 10-11)  
복음(마 태 오 6: 7-15, 성서 P. 11)
- 6(수) 독서(요 나 3: 1-10)  
복음(루 가 11: 29-32, 성서 P. 160)
- 7(목) 성녀 베르베루아와 펠리치마스  
독서(에 스 데 14, 1: 3-5, 12-14)  
복음(마 태 오 7: 7-12, 성서 P. 14)
- 8(금) 성 요한 아베오  
독서(에 제 18: 21-28)  
복음(마 태 오 5: 20-26, 성서 P. 9)
- 9(토) 성녀 프란치스코로마나  
독서(신 명 26: 16-19)  
복음(마 태 오 5: 43-48, 성서 P. 10)

가톨릭센터 「시민 상담실」 설치 안내

- ① 건강문제; 담 당 자~염광섭(성모병원 내과과장)  
상담시간~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 ② 인생문제; 담 당 자~김현수(전주교대 교수, 전북 인  
간관계 교육협의 이사 대표)  
상담시간~매주 화요일 오후 8시~9시
- ③ 여성문제; 담 당 자~안지은 가톨릭센터.총무)  
상담시간~매주 수요일 오후 8시~9시
- ④ 자녀교육문제; 담 당 자~조해형(전주동중교장, 노중  
동성당 사도회장)  
상담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8시~9시
- ⑤ 외국문제; 담 당 자~(Miss. Anita Stalf)  
상담시간~매주 금요일 오후 8시~9시
- ⑥ 신앙문제; 담 당 자~박진량(전주교 신부; 가톨릭 센  
타 관장)  
상담시간~매주 토요일 오후 8시~9시
- \* 위와 같이 오는 3월부더, 가톨릭 센터 218호실에 상  
담실을 설치하여, 각 분야별로 편성된 담당자가 정해  
진 시간에 기다리고 있겠으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  
은 적당히 선택하여 널리 이용해 주십시오.  
상담은 무료이며, 서신으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4지구 6개 본당 소식

[소]

[식]

1. 중·고등부 각 셀(Cell) 지도자 및 의장 모임 (3일 오후 2시, 해성학교 종교감실) 새학기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2. 한 주교님 일주기 미사 (7일<목> 오전 10시) 중앙성당에서 주교님 집전하에 주례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4지구 성년대회 (7일<목> 오후 8시) 중앙성당에서 있을 주교님 합동미사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매주 금요일마다 성년 행사 (중앙성당) 오전 10시미사-오후 8시까지 성체 헌시와 특별 고백 성사 (오후 3시-5시)가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안복진  
 ②3874 보좌 신부 박창신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2. 주일학교 (2일<토>) 및 일반교리 (3일<일>) 개강 (오후 2시)  
화 목요일(적자인 오후 8시, 일반인 오전 10시)
3. 성경동지회 모임 (9일<토>오후 6시)
4. 꾸리아 월례회 (9일<토> 오후 3시)
5. 제2차 성년모임 (7일<목> 오후 8시)  
모든 교우님들은 성당에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6. 성체 헌시 및 특별 고백성사 실시 (매주 금요일) 성년행사로 오전 10시 미사후 부터 밤 8시까지.
7. 가정방문  
4일(월); 중노 태평 2가  
5일(화)~6일(수); 서노 1구  
□출판물 보급주일 현금 3,515원  
지난 주일 봉헌금 42,303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3월은 성요셉 성월(미사후 공동성월, 십자가의길)
2. 사도회 월례회 연기
3. 복자 성우회 (다음주일 공식미사후)
4. 유아세례 (5일<화> 오전 10시)
5. 교무금 납부요망 (본당 운영에 협조)
6. 성수기 기증 (석조 2만원; 익명)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미사참례자수 10시; 327명 7시반; 442명  
지난주일 성미 2말 5되 누계 257말 6되  
출판물 보급주일 특별헌금 5,310원  
지난주일 봉헌금 15,30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오후 7시로 연기)
2. 아동교리 시간변경 (학부모들은 유의하시길) 주일 공식 미사후 (10시) 하던걸 토요일 오후 6시.
3. 광주 고난회 피정의 집 (월, 화, 수요일 미사없음) 4지구 성직자 4분, 수녀님 4분, 평신도 8분이 (3일~6일까지) 피정에 참가. 교우들의 기도 요청.
4. 아침미사로 변경 (8일<금>... 평의회 관계로) □지난 주일 봉헌금 10,729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조해형

- 노송성당 신축 기공식 (3월19일)  
 교우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공전을 신축하는데 적극 협조합니다.
1. 협조해주신분 (감사합니다)  
(3만원) 이병학, 이름을 밝히지 않은분 (머릿돌 값)  
(1만원) 고평하, 작은 형제 회원, (3천5백원)백복회  
(3천원) 김진석, 유봉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  
(천오백원)함임순, (1천원) 이문녀, 박귀남,  
(천4백원)강필래, (5백원) 전창환, 안순이
  2. 약속 기증품  
석물 제대 1벌 (30만원) : 이태영 (마트로) 회장님  
십사처상 (2십8만원) : 노선옥(바리야)여사  
간실일절 (십5만원) :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교우님  
□지난 주일 신축기금 98,400원 누계 754,150원  
지난 주일 신축성미 3말 5되 누계 142말  
출판물 특별헌금 1,610원  
지난주일 봉헌금 17,20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 저녁 미사후, 수요일 저녁 미사후)
2. 자모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3. 유아세례 (공식 미사후)
4.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저녁미사후로 연기)
5. 월, 화요일 미사 없음 (신부님 광주피정)
6. 가정방문은 아침으로 (누락된 가정은 신고 요망)
7. 주일학교 일일 교장 송재진 선생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무금 신일 현황 517세대, 2,855,300원  
교무금 신일 안하신 세대는 신일요망 합니다.  
출판물 특별헌금 6,750원  
지난주일 봉헌금 3,5354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중택  
 사도 회장 김중환

1. 신용조합 임원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2. 평일미사 없습니다. (4일<월> 5일<화>; 신부님 피정)
3. 본당 피정 참가비; 240원 (2번 식사대) 매; 9(토) 오후 7시30분부터 10(일)오후7시30분까지 곳; 덕진천주교회 참가자; 사도회 임원, 각 공소회장단, 각구역회장단 및 각 반회장과 교우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애령회 기금 조성 성미모금 운동 교우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5. 본당 신부님(김요셉) 영명축일; 19일(화)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구 부탁드립니다.
6. 본당 재정상황 결산보고 (73년10월~74년2월말까지) 수입 807,237원 (교무금 395,700원, 주일금146,792원 기타수입 17,145원 과년도 교무금 247,600원) 지출 801,286원 (74년2월에 지출 예정금액 63,421원) 잔액 5,951원
7. 앰프 마련에 협조해 주신분 (목표액 70,000원) 지난주 완납... (천원) 김동선, 문계원, 송정원, (오백원) 유정순, 노남식 신일액 1,500원 총 완납액 60,900원 누계 62,400원 부족액 7,6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6,040원, 감사합니다.



3월은 요셉 성월